

삼·고·초·려

호진 스님 中僧大 총장 고사 '화제'

세간과 출세간을 막론하고 명예를 좇는 이들이 넘쳐나는 요즘, 출가자로, 불교학자로 세수 고희(古稀)를 앞둔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사진)이 승가교육기관의 수장적인 중앙승가대 총장직을 하심과 무소유 정신으로 고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무 갖춘 총장 후보를 찾다보니 호진 스님을 추대하게 됐다. 하지만 사전에 스님의 승낙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도 2월 12일자로 발송된 호진 스님의 서신을 꺼내 보이며, "호진 스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중책을 맡기에 나이가 많으니 총장직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사방에서 적임자라 하니 스님이 희생해 달라고도 직접 통화도 해봤고, 호진 스님의 은사인 법인 스님에게까지 압력(?)을 넣어 봤지만 소용없었다. 특히 도반인 지안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장)도 호진 스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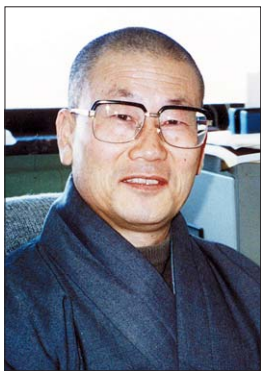
청화 스님(교육원장)의 "호진 스님이 사적으로 요청했을 때는 고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 요청한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이사는 마침내 추대를 결의하고, 고사 중인 호진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중화, 정화, 정년 스님을 교섭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사회 직후 중앙승가대 구성원들과 경주 기림사를 찾아 호진 스님을 면담한 월우 스님(중앙승가대 총무처장)은 "이사회에 뜻을 전하며 '중앙승가대의 화풍을 바로잡아 달라'며 재차 강조한 결과, 금강간 교섭위원 스님들이 호진 스님을 만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이 없는 사람이 어찌 조실을 맡겠나"며 불암사 조실을 사양했던 적령 스님이나 "능력이 없고 나이도 많으니 총장직을 수락할 수 없다"는 호진 스님, 두 스님의 겸양은 탐욕으로 고통을 자초하는 대중들에게 가문의 단비요,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정년 스님은 "학덕과 인망을 두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편안한 세상으로 가시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17일 오전 정년 스님(재무부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등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함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찾아 김수환 추기경 선종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모든 이를 위하여는 가르침 이어지길”

불교계도 김수환 추기경 추모·조문 잇따라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善終)에 불교계 지도자들이 잇따라 애도를 표하며, 종교간 평화와 사회화합을 이끈 김 추기경의 가르침이 부단히 이어지기를 당부했다.

김 추기경의 선종 당일 종교를 초월한 도반으로 30여 년 사회활동을 함께했던 월주 스님(조계종 前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애

도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평화와 봉사,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을 가슴깊이 애도한다”고 말했다.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각각 애도문을 발표했다. 정산 스님은 “어려운 시대에 정신적 지도자로서 나라의 나이값 걸고 국민의 진보에 희망을 던져 준 추기

경님의 큰 뜻이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발원했다. 회정 정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종교간 화합과 대화, 민주화 노력 등에 종교인 모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애도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17일 오전 정년 스님(재무부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등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함께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했다.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원장)도 20일 추기경의 영결미사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

조동섭·노덕현·김진성 기자

“마음건강하면 당당한 삶”
선지식을 찾아서 14 정관 스님

“가는곳마다 주인되기”
나의 수행이야기 5 미산 스님

▶ 7 불교학회 겨울워크숍
▶ 19 사진계의 선택 김아타

법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축복의 꽃밭길을 간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륜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륜사무소 서안
의리명당·민사·원사·가사·행경
강영희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정사기 맛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음 연재 초종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다들 좋아하고, 고함심, 현역승원
NAVER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얼레피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도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가뭄 속 타는 농심에 감로수 전달

조계종, 가뭄피해지역 긴급 구호물품 전달

역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고생하는 각 지역에 불자들의 시원한 손길이 뻗고 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위원장 지관)는 2월 19일 강원도 정선군에 생수 1만 5000개를 전달했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정암사 주지 정광 스님과 함께한 봉사대는 유창식 정선군수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가뭄극복을 기원했다.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기금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생수지원과 더불어 조계종은 '자비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강원지역 생수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사찰에 동참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긴급지원에 앞선 2월 13일에는 월정사(주지 정년)가 태백시청과 정선군 고한읍에 생수를 비롯한 물품과 구호기금을 전달했으며, 2월 12-15일 도선사(주지 혜자)도 108산사 순례행사로 구미 도리사를 찾

아 가뭄극복 기원법회를 열고, 구미시 등 경북·강원남부 지역에 생수 5000개를 전달했다.

한편, 겨울가뭄이 극심한 지역은 강원·전남·경북일대로 이중 정선·태백지역은 급수원인 광동댐이 바닥을 드러내 제한급수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전남 지역은 80년 만에 최악의 겨울가뭄으로 도내 258개 마을, 3만 2000여 명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으며, 5개 군 33개 마을은 소방차나 급수선으로 식수를 공급받는 등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후원문의 (02)723-5101 노덕현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암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K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중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주름등, 전선시공,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